

카카오뱅크 예상가치 최대 18조원... '파상'이면 바로 KB 두 배

조선비즈

카카오뱅크는 28일 유증자 공시를 내고 예상 공모가는 3만3,000~3만9,000원이라고 밝혀 시총은 15조6783억~18조5289억원에 달할 전망

상장 첫날 '파상'(공모가 대비 시초가 2배 후 상한가)이 이뤄지면 KB·신한을 합친 시가총액(시총)을 뛰어넘으며 1등 금융회사에 오를 수 있는 평가액

문재인 대통령도 금리상승 '우려'..."가계부채 관리 위한 대책 세워야"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선제적인 물가안정 노력으로 서민 생활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추석을 전후해 생활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면밀하게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

기업銀, 中企에 1조5000억 대출 지원

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1조5000억원 규모 설비투자촉진 자금 및 전액신용 대출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으로 혁신·창업기업 설비투자 촉진 지원, 성장유망기업에 전액신용대출, 일시적 유동성 위기기업에 금융안전망 방안 구체화

지방은행·보험사가 주담대 금리 더 싸네

매일경제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주담대에 대한 공격적 영업이 어려워지자 경남은행과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이 저금리를 바탕으로 이 틈새를 공략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은 접근성 측면에서 시중은행보다 열세지만 성장세는 시중은행보다 높다. 올해 1분기 부동산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이 시중은행을 크게 웃돌았다.

'건전성 높여라' 중소 보험사 줄줄이 유상증자

이데일리

보험사들이 떨어진 지급여력(RBC)비율을 끌어올리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푸른현대생명은 4580억원 규모, 캐롯손해보험은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 MG손해보험의 경우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계, 4세대 실손서 할인 제외 시도 '물거품'

데일리안

보험업계가 다음 달 판매가 시작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예정돼 있던 보험료 할인을 제외하려고 시도했다가 무산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새 실손보험에 기존 3세대 신(新)실손보험과 동일한 보험료 할인율을 유지하라고 보험업계에 요청

카카오페이 상장예비심사 통과...이르면 8월 증시 입성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결과 상장 적격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시 바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절차에 들어가면 이르면 오는 8월 중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가치는 10~18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LG에솔·카뱅·크래프톤 역대급 '줄줄이'..."옥석가리기" 경고도

뉴스1

올해 상반기 IPO 시장의 호황으로 기업들의 주식 공모 규모도 5조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IPO 규모를 반년만에 추월. 하반기에도 카카오뱅크 등의 IPO로 호황 이어질 전망

고평가 여부를 경계해야 한다. 크래프톤은 공모가 하단으로 23조원 수준의 시가총액을 제시해 고평가 논란을 빚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을 받았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주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